

야구부, 우승깃발에 '동국'을 새기다!

전국대학 야구선수권대회 첫 우승 ... 열악한 운동환경 속 쾌거



우리 학교 야구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열린 제61회 전국대학야구 선수권대회에서 60년 만에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대회 우승은 지난 99년 전국대학 야구 춘계리그전 이후로 7년 만이다. 이번 대회는 13일 동안 남해 스포츠 파크에서 진행됐으며 연세대, 한양대, 건국대 등 전국 32개 대학 야구팀이 참여했다. 우리학교는 지난 1일 열린 8강전에서

연세대를 상대로 선발투수 이동걸(체교3) 선수가 5회말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기 끝까지 실점 없이 5:0으로 압승을 거두었다. 다음날 열린 준결승에서는 건국대를 6:1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지난 3일 결승전에서 우리학교는 성균관대를 꺾고 올라온 원광대를 맞아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3회초 수비에서 3루수의 실책으로 1점을 먼저 내줘 뒤지고

있던 7회에 이태원(체교1) 선수의 동점타와 이영욱(체교3) 선수의 안타로 2:1 역전에 성공했다.

그 기세를 몰아 8회에는 유명환(체교2) 선수가 솔로 홈런으로 점수를 더 벌여 놓았다. 9회 초 원광대의 마지막 공격 1사 만루의 위기 상황에서 이동걸 선수가 던진 공이 병살타 처리되면서 경기가 3:1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경기를 우승으로 이끈 사령탑 김학용 감독은 "100주년을 맞은 해에 우승의 영광을 이뤄 뜻깊다"며 "선수들이 끝까지 땀 흘려서 잘 싸워 준 것이 우승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우승의 숨은 공신으로는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노련하게 팀을 이끌며 포수의 역할을 잘 해냈고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태원 선수를 꼽았다.

최건웅 코치는 "지난해 우승팀인 연세대의 경기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선수들이 잘 해줬고 그 상생세가 결

승까지 이어졌다"며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3승을 이룬 투수 강민욱(체교2) 선수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으며 결승에서 4회에 등판해 9회까지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된 이문광(체교3) 선수가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수훈상에는 이영욱(체교3) 선수가 뽑혔다.

야구부의 이번 우승에 대해 엄보람(전기공1) 양은 "우승소식을 접했을 때 동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지금 야구부는 전국대학야구 추계리그전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예전에 사용하던 일산 구장이 폐쇄되어 연습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태원 선수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야구장을 확보하는 데 힘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이 기자
banacream@dongguk.edu

외부 연구 수주 대폭 증가

약 150억원 유치 ... 연구사업 활발

2006학년도 상반기(8월 21일까지) 외부수주 연구과제 수는 128개로 수주액은 약 150억 원이다. 외부수탁 수주 현황을 보면 올해 신규로 유지한 국책 연구 사업에는 14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NRL)로 우리학교 나노바이오진단 연구팀이 선정되어 매년 연구비를 2억2천만 원씩 총 11억 원을 5년간 지원받는다.

산업자원부 지원혁신 특성화 사업(RIS)에는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공과대학과 경주캠퍼스 의과대학이 선정됐다. 3년 동안 총 82억6천8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혁신 주체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다.

또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2006학년도 신규과제에 기초연구 지원 사업 분야에서 2개 과제가 선정돼 총 2억2천4백만 원을, 신진교수 지원

사업 분야에서 9개 과제가 선정돼 총 1억6천8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에는 충무로 영상문화사업단과 통합인문학 특성화사업단이 선정되어 총 25억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계속 진행 중인 다년도 국책 연구 사업에는 5개가 있다.

우선 과학기술부 지정 연구센터 지원 사업으로 우수연구센터(SCR, ERC)가 8차년도 사업이 수행 중이며 센터당 연간 12억~14억원 씩 지원받고 있다. 기능성플로이드소재 센터는 산업자원부가 시행하는 산업기술포럼조성사업에 3차년도 수행 중으로 5년간 총 66억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그 외에도 RFID 솔루션 주체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다.

손주희 기자
sonhee1347@dongguk.edu



"메밀꽃 필 무렵" ...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중앙도서관은 지난 9일(토) 제1회 도서관 학기행 프로그램으로 이호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되는 봉평을 방문해 호석문학관 관람 등 호석문화제 행사에 참여했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수시 1학기 등록 마감 2학기 원서접수 실시

2007학년도 수시1학기 최종 합격자가 지난 달 25일에 발표됐다.

총 284명 모집에 4,95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7.46:1을 기록했다.

특히 국어국문학과는 44.8: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우수자 △리더십 △연기재능우수자 전형 등을 통해 총 284명이 합격했으며 지난 5일까지 215명이 등록을 마쳤다.

등록률은 작년 82%보다 다소 떨어진 76%였으며 최종 등록은 내년 1월경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수시 2학기 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13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실시된다. 전형별로 △일반우수자=685명 △불교계추천=74명 △수학·과학 교과우수자=56명 △의국어 우수자=69명 등 총 1,089명을 모집한다.

모집단위에서 공연예술대 뮤지컬학과, 정보산업대 게임멀티미디어 학과가 신설됐다.

서울시 인문학 장학 본교생 10명 선발

서울시 인문학 장학생에 우리학교에서 학생 10명이 선발되었다. 이는 순수 인문학 분야(박사과정) 연구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1학기에 만들어진 장학제도이다.

이번 장학생 선발에 우리학교는 고려대(13명)에 이어 연세대와 각각 10명으로 2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서울시 인문학 장학은 지원율에 따라 합격률이 조정되므로 학생들의 참여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장학금 수여식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본관 대평홀에서 열린다. 선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어문계열=김지오(국어국문), 김종희

(일어일문), 스키에이코(일어일문) ▲사학계열=김순아(미술사학), 최보영(사학), 허상호(미술사) ▲철학계열=박보람(불교학), 윤영호(불교학), 허유선(철학) ▲기타계열=전용환(연극)

사법연수생 재직 동문 고시반 발전기금 전달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인 동문 장재윤 외 17명이 지난 30일 법과대학 학장실에서 고시반 발전기금 216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사법연수원생들에 의한 발전기금은 고시반 출범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정기적인 발전기금 기부를 약속하였으며 올해의 경우 2차로 연말에 전달할 예정이다.

본사사령

- ◇ 신입 부장
 - ▲ 대학부장=이주현(이과대 수학2)
 - ▲ 문화부장=정은미(문과대 국문2)
- ◇ 임 정기자
 - ▲ 류경화(사과대1)
 - ▲ 최미혜(경영대1)
 - ▲ 손주희(사과대1)
 - ▲ 이송이(공과대 전기공학1)
 - ▲ 문서영(사과대1)
 - ▲ 이윤재(공과대 전기공학1)
 - ▲ 김나리(경영대1)

- 이상 9월 11일자

금주의 동국인

값진 승리 이끈 야구부 김상식 주장



"와아아아~"

기쁨에 넘친 우렁찬 함성이 운동장에 울려 퍼진다. 서로 부둥켜안으며 울기도 한다. 이는 지난 3일 전국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이 확정된 순간 우리학교 야구부의 모습이다. 아직 우승의 감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야구부 주장 김상식(체교4) 군을 만났다. '경기 전 여느 때와 다른 일을 하면 그

경기는 꼭 진다'는 야구부만의 징크스. 그는 이번에도 평소처럼 해서 우승을 이끌어 냈다며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 갔다.

김 군은 "우리학교 100주년의 축제 분위기를 이어 갈 수 있어 기쁘다"며 우승 소감을 밝히고 지난 결승경기를 회상했다. "7회 초까지 1:0으로 지고 있었지만 경기 전부터 모든 선수들이 우승을 자신하고 있어서 조금씩 하지 않았다"며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야구를 하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김 군은 야구부주장이 되었을 때 선수 생활의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선수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잘 안해서 주장으로서 팀을 이끄는 데 답답한 경우가 있다"며 그동안의 고초를 털어냈다. 또한 "경주캠퍼스 학생들은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경우 경주로 내려가야 해서 더욱 힘들다"며 많이 안타까워했다.

바쁜 훈련과 경기일정으로 일반학생들과는 사뭇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때문에 수업에 자주 참여하지 못한다는 김 군은 수업에 들어가 열심히 강의를 듣고 제대로 과제도 내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밝혔다.

8·90년대에는 야구를 응원하기 위해 학교를 왔다고 말할 정도로 대학 야구의 인기가 높았다. 이에 대해 김 군은 "이번을 계기로 예전처럼 다시 많은 학생들이 야구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라며 곧 있을 추계리그에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다진다. 삼성 진갑용 선수의 우직함을 닮고 싶다는 김상식 군에게서 기량을 쌓기 위해 달려가는 그의 땀방울을 엿볼 수 있었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학점포기 신청 내일 시작

2006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취득교과목 포기)신청이 내일(12일)부터 3일간 시행된다. 이번 학기부터 인터넷으

로 신청접수하며 등록·수강신청을 한 재학생에 한해 가능하다.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은 폐쇄되거나 명칭이 변경돼 2006학년도 학업이수 가이드에 표기돼 있지 않은 과목이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한 뼘 더 높아진 하늘,
상쾌함을 전해주는 바람,
가을이 왔습니다.



2006년 9월의 어느날

스치듯 지나가는 가을이 아쉽다면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기는 건 어떨까요?

외부 연구비 수주 확충 필요

연 150억원 미만 ... 이공대 교원 수 증대해야

우리학교의 전체 외부수주 연구비규모는 최근 몇 년 전까지 서울캠과 경주캠을 합쳐 1년에 150억원 미만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약 200억 원을 수주 받았고 올해 목표는 250억 이상이다. 올해는 현재 약 170억 원이 집계됐으며 목표한 218과제 중 146과제가 선정됐다.

우리학교 이공계의 경우 교수 1인당 수주 외부연구비는 전국대학 상위 10위 정도에 올라있다. 이공계통의 학문분야가 외부연구비 수주에 많이 해당되는데, 상대 등 서울시 주요대학의 교수가 600~800여 명인데 비해 우리학교는 150여 명에 불과하다.

우리학교는 전통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인문사회 분야가

강하기 때문이기도 해 전체 외부수주 연구비규모는 높은 순위가 아니다.

한편 지난 4월에 발표된 2004년 한국과학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출원 성과분석에서 우리학교는 연구비 10억당 특허출원과 과제당 특허출원 분야에서 각각 7.07건과 2.22건으로 포스텍(구 포항공대)의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KAIST와 서울대 등을 누르고 높은 실적을 얻어 연구생산성이 돋보였다. 이는 투자 연구비에 대해 성과분석을 한 평가자료를.

또한 수행사업과제당 학술지 등에 게재된 과제당 논문 게재수가 평균 23.89편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전체규모는 작지만 교수 1인당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연구수주 장려를 목적으로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대학이 공제한 간접경비의 부분을 교원들의 연구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우수한 대학원생 유치, 교원들의 해외연수 기회 확대, 외부연구과제 신청 준비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2학기에는 연구비 수주확충을 위한 업무지원이 보다 강화될 방침이다. 국책과제 수주를 위한 예비사업팀이 구성될 예정이고, 사업신청을 돕고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연구지원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원기관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비 수주 증대를 계획 중이며, 연구비 관리의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 업무처리 서식을 간소화해 효

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 외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중량관리 우수기관 시범 지정을 위해 자체·점검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성구(산업시스템공학) 연구처장은 "외부연구비를 수주하면 교수들의 경우 연구를 수행하고 신기술 자재를 구비해 좋은 연구결과를 내 연구업적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우수한 학생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역시 연구인프라를 확충해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여러 약질의 시설을 설치한다면 학교의 평판을 높이고 좋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외부수주연구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이종대(영상대학원) 신임 총무로 영상문화산업단장을 만나

영상문화콘텐츠 선도대학 만들것



- 총무로영상문화산업단 단장을 맡게 된 소감은.

= 영상문화 사업은 우리학교 전체의 비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학교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잘 아는 기획처장이 단장을 겸임했다. 업무가 많아지고 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자리로, 앞으로도 이 같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싶다.

츠에서 부가가치는 기획 및 시나리오에 달려있다. 이 점에서 우리학교의 인문학과 예술학이 연계되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문화콘텐츠는 사람들이 있거나 잃어버린 정서를 충전하고 환기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문화생산물들을 상품화 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에 대한 탐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 총무로영상문화산업단 추진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첫 번째는 교육구조 개선이다. 학과의 벽을 허물고 문화콘텐츠작업에 필요한 연계교육과정을 개발해 시나리오부터 제작까지 다양한 분야의 학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 교양과정에서부터 학부과정, 영상대학원에 이

르기까지 학생들의 특성과 진로를 고려해 어떤 단계를 밟아 올라갈지 안내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학생들로 하여금 산학연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최신 기술 관련 공동실험포럼을 개최하고 싸이더스FnH, KBS 등과 협력하여 기술연구 및 콘텐츠 제작까지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각종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여도가 높은 학생에게는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이번학기부터 다음 학기 까지 240명의 학생에게 5억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려 한다.

최미혜 기자
misonaral@dongguk.edu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신 기자재

- 2006, 2006년 2년 연속 수도권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우리학교만의 장점과 문화콘텐츠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다면.

= 우리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인문, 예술, 공학이 결합된 교육시스템이다. 이 점이 심사에서도 높이 평가되었다. 영상문화콘텐츠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2개 분야 선정 ... 총 25억 확보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6년도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에 우리학교 총무로 영상문화사업단과 통합 인문학 특성화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총무로 영상 사업단 경우 자유과제 부문에서 '영상문화콘텐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사업'으로 21억 1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디지털 환경의 문화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총무로 지역을 거점으로 21세기 동북아 영상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여건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혁신적으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학협력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지향적인 사회진출거점을 확보하면서 영상미디어학부를 신설하고 인문학·예술·공학 분야를 연계·통합하며 총무로 CT(culture technology)클러스터 구축,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국제

화, 창업과 취업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여러 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통합 인문학 특성화 사업은 지정과제 부문에서 통합인문학기반의 차세대 문화인재 양성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통합인문학기반의 교양교육을 강화하여 '문화'를 중심으로 연계전공을 개발하고, 학제적·글로벌교육을 시행하여 차세대 문화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교양교육과정과 방법을 개편하고 교육 전담인력을 충원하며, '문화' 관련 3개 연계전공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테크놀로지실습실 설치,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인력 충원, 다양한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도입, '문화' 분야의 학술연구 관련 대규모 연구소 신설, 문화학 학술지 및 학술총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손주희 기자
sonhee1347@dongguk.edu

동약로 잇박자

'점프박학'이란 말을 들어 보았는가? 주위에 조기박학생이 없다는 생소할 단어이다. 어감은 흥미롭지만, 이 점프박학의 재밌지만은 않은 속사정을 알아보았다.

우리학교는 학사 일정이 1년을 주기로 진행된다. 휴학을 할 경우 1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조기박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학하는 학생의 30%정도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있다. 이 경우 학년만 바뀐 채 같은 학기를 연속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이익이 문제가 되고 있다.

조기박학생들은 학년을 올라가지만 학기 수가 채워지지 않아 2학년 2학기에 이뤄지는 교직이수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우수 장학금 선발에서는 동점자가 생길 경우 우선권이 서 밀려나며, 교환학생도 신청할 수 없다. 특히 교과과정이 대부분 학기, 학년별로 나뉘어 편성되기 때문에 교과 이수에 차질이 생긴다. 조기박학을 한 김민수(경영2)군은 "사정상 한 학기 만에 복학했지만 불이익이 생각보다 크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학기 조기박학생에게도 전과가 가

능하도록 개편을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학사지원실 류 변성 과장은 "복학생들이 많은 3·4학년에 개설된 과목은 학년을 구분하지 않았고, 학사 개편을 할 때도 학년·학기 이등은 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의 경우 방학은 학년제이지만 학기별 이수 과목을 얹는 등 모든 행정을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어 한 학기 휴학생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 대학에서는 1년을 3학기로 나눠 학사일정을 진행하는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약 우리학교에서도 학기제를 시행할 경우 조기박학생들의 고충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학사 일정도 통일돼 외국대학과의 교수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 역시 국내 교·직원의 인력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타 대학이나 외국대학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 현재의 폐단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이 문제없이 교과에 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나리 기자
vik26@dongguk.edu

야구부 후원의 밤 열려

야구부 후원회가 야구부의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우승을 기념해 지난 6일 후원의 밤을 가졌다.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이번 후원의 밤에는 후원회 회장인 정용길(정치외교학) 교수, 원용선 총동창회장, 조희영 명예교수, 김

장수 교수, 박상호 전 체육실장, 정창현 전 체육실장, 차준환 체육실장, 이종희 농구부 감독 등이 참여했다.

야구부 후원회는 체육 진흥을 통한 학교 발전을 꾀하려 지난 79년 5월 창립대 전지훈련 지원, 격려금 전달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동국포럼 창립 1주년

창립 1주년을 맞은 제10회 동국포럼이 지난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김진선(행

정 74쪽) 강원도지사를 연사로 초청해 "지방자치의 발전과제 및 전망"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동문들이 함께한 자리 속에 진행됐다. 동국 포럼은 학교 전통을 계승하여



"오늘부터 봉사 시작" ... 동국 참사랑봉사단 2006 가을학기 사회봉사 예비교육이 지난 9일(토) 오후 2시부터 본관 강강당에서 열렸다. 약 3시간동안 진행된 교육에서는 우리학교 학생 7000여 명이 참여해 강강당을 가득 메웠으며, 함림원 함림직업장 시설장 김상현 원장의 '학습과 자원봉사'라는 강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류경화 기자 jinghe66@dongguk.edu

2007년도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 모집인원 : 4년제대학 졸업자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00명) 남학생
- 지원자격
 - 입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의 남자 (1979. 11. 1 ~ 1987. 10. 31일 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9. 25 ~ 10. 24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지원서 1부	대학 입학(예정)증명서 원본 1부
호적등본 / 주민등록본 각 2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고등학교 생활지도기록부 사본 1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대학 수능성적증명서 원본 1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대학 입학(예정)증명서 원본 1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컬러사진(반명함판 4x5cm, 탈모상반신) 3매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신원진술서 A양식 1부	

구 분	2007년도 학사사관
지원서 교부 / 접수	2006. 9. 25 ~ 10. 14
체 력 검 정	2006. 10. 25 ~ 11. 1
신체검사 / 면접평가	2006. 11. 2 ~ 11. 17
1차 합격자 발표	2006. 12. 22
신 원 조 회	2006. 12. 26 ~ 2007. 2. 23
최종합격자 발표	2007. 3. 8

- 대우 및 복지혜택
 - 전공학과와 연계된 병과 근무가능
 - 장가지원시 국내 외 민간인 대학원 위탁교육 가능
 - 장교급여, 전역시 취업알선등 각종혜택 부여
-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tel 02-2260-8537)

2006 하반기 군 장학생 모집

- 모집인원 : 1학년(350명) 남학생
- 지원자격
 - 입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의 남자 (1990. 7. 31 ~ 1982. 8. 1일 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8. 21 ~ 9. 19
- 구비서류

지원서 제출시 증명서류	
지원서 1부(사진 4x5cm 부착)	대학 확인용 성적증명서 1부
사약서/복무연장 지원서 각 1부	컬러사진(반명함판 4x5cm) 5매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각 4부	신원진술서 A양식 3부
대학 수능성적증명서 원본 1부	가산점 증명 서류
고교생활지도 기록부 사본 1부	

구 분	2006년도 하반기 군장학생
지원서 교부 / 접수	2006. 8. 21 ~ 9. 19
체 력 검 정	2006. 9. 20 ~ 9. 29
신체검사 / 면접평가	2006. 10. 2 ~ 10. 13
1차 합격자 발표	2006. 11. 3
신 원 조 회	2006. 11. 6 ~ 12. 15
최종합격자 발표	2006. 12. 23

- 대우 및 복지혜택
 - 학군 후보생 선발시 우대 (지원서 "加"점 부여)
 - 대학 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수확보조비 지급(연2회 등록금 실태 전액 지급)
 - 입관(인대)시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보직 활용
 - 국내의 민간대학원 석·박사 취탁기회 부여(장기 복무시)
 - 우방국의 선진 군사교육을 받을수 있어 고급 지휘관으로 성장할수 있음
 - 기혼자 군속소 지원
 - 전국 유명호텔 및 콘도 이용 : 휴가, 출장시 이용 가능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대기업체 채용 우대)
-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tel 02-2260-8537)

2006 여군사관 후보생 모집

- 모집인원 : 192명 : 보병(13), 정병(31), 공병(8), 통신(20), 전산(13), 병기(18), 병참(11), 수송(10), 화학(9), 부관(10), 원병(8), 경리(15), 정훈(9), 수의(2), 의정(15)

- 지원자격
 - 입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1979. 8. 1 ~ 1987. 7. 31출생자) 미혼여성, 4년제 대학 졸업(2007. 2월 졸업예정)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9. 11 - 10. 11
- 구비서류
- 선발 방법 / 일정

· 지원서 1부	·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호적등본 / 주민등록본 각 2부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고등학교 생활지도기록부 사본 1부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대학 수능성적증명서 원본 1부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가산점 증명서류	

구 분	여 군 사 관
지원서 접수	2006. 9. 11 ~ 10. 11
1차 합격자 발표	2006. 11. 3
인성검사 / 신체검사	2006. 11. 6 ~ 11. 10
체력검정 / 면접평가	2006. 11. 13 ~ 11. 17
2차 합격자 발표	2006. 12. 1
신 원 조 회	2006. 12. 4 ~ 2007. 1. 19
최종합격자 발표	2007. 1. 26

- 생활 필수품을 공장도 가격 수준으로 구입
- 휴가, 출장, 기타 업무시에 군 휴양 복지시설(호텔 및 콘도)이 용가능
- (서울, 부산, 대전, 제주, 설악, 용인, 지리산, 양평등)
- 기혼자에게 군 아파트 제공
- 출산휴가, 정기휴가 실시
-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tel 02-2260-8537)

예비군 전입신고 기간(연장)

1. 신고 기간 : 2006년 9월 11일 ~ 9월 15일(1주간)
2. 신고 대상
 - 가. 일반유학 후 복학하는 학생(학부, 대학원) 중 예비군 대상자
 - 나. 편입생 중 예비군 대상자, 1학기/2학기 미 신고자
 - ※ 급년도(2006년)전역자는 2007년도 2월말 경 신고/접수
3. 신고 장소 : 예비군 연대본부 사무실(본관 2층)
4. 신고시 지참물
 - 가. 전역증(군번, 주특기, 입영일, 전역일 등 기재 시 필요)
 - 나. 등록금 영수증(미등록자는 대학 예비군에 편성불가)
 - 다. 필기구(신고서/편성확인서 작성 및 본인 서명 시 필요)

동국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장
(예비군 연대본부 : ☎ 2260 - 3073 ~ 4)

최근 벌어지는 파업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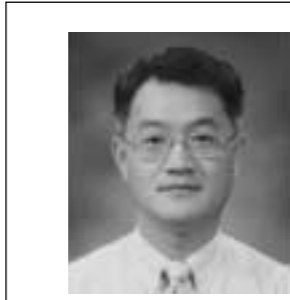
인간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지난 9월 5일 발전산업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하루가 못되어서 파업을 철회했다. 포항건설노조는 8월 12일부터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을 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십명이 구속된 바 있다. 자동차업계는 금년에도 파업을 겪었는데 현대자동차는 파업 및 잠입거부가 21일, 기아자동차는 부분파업 23일, 쌍용자동차는 부분 및 전면파업 27일을 기록하였다. 이제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농성은 아직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발전산업노조는 4년만에 다시 파업을 했는데 이슈로 제기된 쟁점은 2002년 파업 등으로 해고된 4명의 원직복직, 5조 3교대를 통한 완전 주5일제 시행, 그리고 4직급(과장급)의 조합가입의무화였다. 포항건설노조는 포스코가 사실상 포스코내 건설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로 주장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파업이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다. 그러나 파업이란 사실 노사간의 자율교섭이 실패한 결과이다. 가능한 한 노사는 서로가 파업을 피할 수



논단
이 영 먼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도록 교섭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파업이 발생한 경우 노사 양측 모두 파업에 대한 책임이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여론을 포함한 제3자이다. 발전산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과연 노사간의 쟁점이 국민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협할 정도의 중대한 이슈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발전회사들도 성실하고 진지한 교섭보다는 직권중재를 기대해서 그 결과 엉뚱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수많은 일반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매년 발생하는 현대자동차의 파업에 대해 시민들은 격정과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동차산업의 대표주자가 연례행사처럼 벌이는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걱정하고 수많은 협

력업체들은 당장 공장가동을 멈추고 피해를 감수하며 불안해 한다.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본사 점거농성이나 KTX여승무원들의 계속되는 농성은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단단계 하청이나 그로 인한 불합리한 내용들은 당사자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포스코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본사를 점거한 건설노조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6월에 발간한 포스코의 2005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보면 미션과 공유가치 부분에 기업적 영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로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포스코의 비전에는 지역사회에 대해 '자랑스런 회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고객

사와 공급사와의 관계에서는 특히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포스코내의 시설을 만드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동과 삶에 무관심한 기업이 영속적인 발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사전 역할 중요

KTX의 여승무원 문제도 사실상의 지휘노무권을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쟁점에 대해 지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한 철도공사와 힘없는 일부 승무원들이 싸운다는 것은 보나마나한 게임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를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비용절감과 생산성 제고라는 이유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기업의 아웃소싱전략 속에서 근로자들은 '인간적인 노동'에서 자주 멀어지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개별적인 파업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보다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과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이 죽음을 듣기 전에, 그리고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기 전에 그럴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국민들이 인간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

체육부 발전을 위한 제안

동문 송진우 선수의 200승 달성 소식에 대한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우리학교 야구부가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축보가 들려왔다. 이번 우승은 야구부 팀 창단 이래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는 60년만의 우승이고, 전국대회 우승은 1999년 춘계리그 제패 이후 7년만의 쾌거이다.

이들 기념해 지난 6일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야구부 후원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야구부 소속 선수들과 감독·코치진, 야구후원회와 총동창회를 비롯한 학교관계자들이 함께 해 격려금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야구부의 활약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학 100주년을 맞은 해에 큰 성과를 이뤘기에 야구부 우승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하지만 이번 우승이 가져온 야구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이번 우승이 단지 우승을 기념하는 단기적 관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동부 전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이끄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작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대학 운동부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대학 스포츠가 전반적으로 침체 상황이다. 우리학교 운동부 역시 동국 구성원들의 관심 속에서 점점 멀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단지 경기결과와 전적 뿐만이 아니다. 우리 학교 운동부서의 훈련환경과 복지현황, 선수들의 학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학교 측이 제도적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파악해 재정비하는 노력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에 그칠 수도 있다. 운동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성과를 앞으로 발전가능성으로 돌릴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는 학교 측과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관심에 달렸다.

야구부의 우승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등야 곳곳을 장식하고 있다. 긴 시간동안 노력해 쌓아온 야구부의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우승이 야구부를 비롯한 운동부 뿐만 아니라 동국 발전을 위한 모든 분야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동국만평

이주현 niitake@dongguk.edu



되는게 있는 이나, 눈뜨고 지켜보는 이나...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 가능한가

대다수 사립대 등록금 의존률 높아 ...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

대학가에서 등록금이 화두가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에는 곧잘 단거적인 등록금 대책안을 내놓던 정당이 '등록금 인상 규제안'을 들고 나왔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대학의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교 설립 경영자가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인상할 경우 반드시 사유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수와 학생, 학부모, 법인 관계자들로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이를 심의하게 된다.

과연 이번 여당의 등록금 인상 규제안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지난해 등록금 인상률이 불가상승률(2.7%)의 2배를 넘긴 곳은 전국 161개 대학 가운데 102개에 이른다. 학교 운영이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립대에 대한 공식적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70% 내외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은 △2005년=80.60% △2006년(예산)=72.50%이다. 심익섭(행정학) 기획처장은 "우리학교의 지난 학기 등록금 원탁 테이블 협상처럼 대부분의 사립대들은 자율경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지원금 등 별도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물가상승률의 1.5배를 기준으로 규제를 한다면 등록금 동결이라는 말은 아예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 오히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대학이 최대치를 항상 고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별로 현재 책정된 등록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등록금이 높게 책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대학간의 격차를 고려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주희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은 "서민가정 경제를 고려할 때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는 미봉책일 뿐이다"며 못 박은 뒤, "오히려 대학 이월 적립금에 상환선을 두어 무분별하게 대학의 재산을 불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립대의 경우 그 성격을 감안해 국가관리차원에서 일정부분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연일 상승하는 등록금에 대해 정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규제'라는 사립대의 반발에 부딪히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교육이 자꾸만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정책을 내놓는 것 못지않게 그 실효성을 고민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제5기 에코포럼 제16회 정례세미나 개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주제로 제5기 에코포럼을 시작을 하게 되어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고자 합니다.

식량생산에 필요한 자원은 모두 오랜 생생시간이 요구되지만 쉽게 훼손되며, 훼손시 복구가 어렵다는 '비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16회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농업-식량'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농업 및 식량문제와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의 후손들이 '최소한' 우리와 같은 생활수준을 영위하게 해야 한다는 세대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충족시키기 위한 농업·식량문제의 접근법을 제시하는 등 이 부문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새롭게 시작하는 에코포럼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2006년 9월 15일(금요일) 오후 3:00 ~ 오후 6:00
- 장소: 동국대학교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
- 주최: 에코포럼
- 주관: 동국대학교 부설 생태환경연구센터
- 주제: 지속가능발전과 '농업-식량'

- 좌장: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 제1발표: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팀 팀장)
제목: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
- 제2발표: 이태호(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제목: 한국의 식량수급
- 토론: 윤성익(동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이명현(인원대 경제학과 교수)

문의: 전화: 02-2260-8648, 팩스: 02-2260-8649
이메일: ecoforum@dongguk.edu

생태환경연구센터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가능 확충사업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여대생의 진로관리능력 향상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커리어우먼 아카데미)를 시행 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대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제4기 일정 및 장소 : 2006. 9.15(금) ~ 2006. 9.17(일) : 민애관 B167
- 제5기 일정 및 장소 : 2006.11. 3(금) ~ 2006.11. 5(일) : 민애관 B167
- 제6기 일정 및 장소 : 2006.11.17(금) ~ 2006.11. 19(일) : 민애관 B167

일 자	시 간	교 육 명	내 용	강 사
(금)	17:00~19:00	자기진단	MBTI성격검사/직업성숙도검사	전진성 (북경성대상담센터/ 진로교육상담팀)
(토)	10:00~12:00	나는 누구일까?	팀장 선정 및 team work 다지기	진로교육상담팀
	12:00~13:00		점심시간 및 Break time	
	13:00~14:50	여성유망직종탐색	여성의 채용동향 및 취업전략	표정희(이화여자대학교) 이영선(OH Korea 대표)
(일)	15:00~16:50	편집 Image Making	자기연출과 Image Making	김정호(주요한 호텔) 김민정(고려대학교)
	17:00~19:00	인사서류 클리닉	담당 컨설턴트의 희망업종별 소그룹 클리닉 (국·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프로그램 종료 후 스타디오킴 연계	홍이(MCA Consulting 대표) 권익수(이영애 대표) 정영민(신영애 대표) 김은영(신영애 대표)
	10:00~12:00	여성의 생애설계	여성의 생애설계와 비전만들기	지유정(아람재단상담)
(월)	12:00~13:00		점심시간 및 Break time	
	13:00~15:00	모의면접클리닉	담당 컨설턴트의 희망업종별 소그룹 모의면접 일대일 Role Play, 영어면접 스킬 프로그램 종료 후 스타디오킴 연계	홍이(MCA Consulting 대표) 권익수(이영애 대표) 정영민(신영애 대표) 김은영(신영애 대표)
	15:00~17:00	모의면접클리닉	모의면접클리닉	한원인(국민은행) 김희원(롯데카드), 최정민(이화대), 홍종현(WSB), 이지영(한국수력원자력), 장혜원(삼성전자), 정진국(삼성생명), 신용희(이화)
(화)	18:30~19:00	행사 평가	설문조사 및 수료식	진로교육상담팀
	19:00~20:00	멘토링 TIME	선배·후배 식사 및 간담회	진로교육상담팀
	1기 접수: 9.6(수) ~ 9.13(수) 9:00 ~ 17:00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신청은 방문접수 2, 3기 접수: 9.6(수)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신청은 접수 (문의: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채유영/교내 3935)			

■ 접수서류: 영사 1장, 영문 이력서 1장, 자기소개서 1부

■ 모집인원: 기수별로 신청은 50명 (예비인원 50명까지 신청가능)

■ 특 전: 점심식사 및 음료(다과 제공/수료증 발급(학생처장 영의)) 우수참여학생 기립 5명(신청 상품 지급) 1GB USB 메모리(영의) 희망업종별 그룹 프로그램 종료 후 스타디오킴로 연계 (일행비지원)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가능 확충사업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참가자 모집

거인전에 새로 및 유망직종을 제시하고 고학년에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취업의 경영 1순위를 제공하여 고학년에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사업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대 상: 전학년(3~4학년 중심)
2. 접수안내: 1회 접수: 9.6(수) ~ 9.11(월) 9:00 ~ 17:00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방문접수
2회~10회접수: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신청은 접수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채유영/교내 3935)
3. 모집인원 및 장소: 외당 신청은 100명, 다원관 세미나실
4. 강의 내용: 업계 전망 및 동향 / 업종의 특징 및 인재상 / 근무환경 / 주요업무내용 및 분위기 / 취업전략(기본요건, 개인역량, 자격요건 등) / 질의응답
5. 프로그램 안내 및 행사일시 (시간: 17:00 ~ 19:00)

회 번	일 시	내 용	강사명	소 속
1회	9월12일	서비스업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강태영	워커히호텔 총지배인
2회	9월19일	IT직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지세근	삼성전자 인사팀부장
3회	10월10일	건설/중공업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김용철	대우건설 기획부장
4회	10월17일	영업직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김원구	LG생활과학 영업팀장
5회	10월31일	마케팅직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이정훈	마케팅엔지니어 코리아 대표
6회	11월7일	경영기획직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이준호	롯데카드인사팀장
7회	11월14일	공기업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신기정	한국전력공사인력총팀팀 과장
8회	11월21일	유통업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고병수	진로 인사팀 과장
9회	11월28일	금융업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김덕환	신한은행 서대문점 지점장
10회	12월 5일	채무회계직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김창수	한국수력원자력 자금팀 과장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헌책방 탐방기

묶여진 책 한 꾸러미로 추억 찾기

현대 도심 속의 시골 장터같은 휴식처이자 지식 오아시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것만을 좋아하는 요즘 저지 않은 사람들은 지난 흔적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찾으려 한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책에서 그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요즘 헌책방이 그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책 읽기 좋은 계절 우리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고 마음을 풍성하게 해 줄 책들로 가득 찬 청계천가 헌책방 거리에 다녀왔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17번지 평화시장. 동대문역 1호선, 4호선 8번 출구를 따라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를 건너 찾아간 헌책방 거리. 가게 안과 밖으로 책이 빼곡하게 쌓여있어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카메라 앵글을 잡으면 외국의 한 서점 거리를 연상케도 하는 그 곳. 활기찬 쇼핑센터

와 코너 하나의 사이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 곳은 발달한 서울 도심 한 복판에서 상업적인 현대사회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작은 마을 같았다.

한 평 남짓한 책방 안에 책 꾸러미들이 사람의 키를 한 참 넘어 천장에 닿을 듯 여기 저기 쌓여 있고 그 안에서 조용히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과 가끔은 무료한 듯 하품을 하는 상점주인들. 모든 것이 긴장의 연속인 현대 사회의 모습과는 다른 정경이었다.

빼곡히 쌓여진 책 사이에 손님 한 명이 진지하게 책을 보고 있던 책방 안. 헌책방 '함양서림'을 운영하고 있는 박철호 씨는 대학생들이 헌책방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고 싶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학생이 공부할 제일 안하는 것 같다"며 "책을 많이 봐야 할

대학생들보다는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헌책방을 많이 찾는다"는 말을 전한다. 더불어 "대학 서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제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지 않다"고 말한다. '홍문관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원영 씨는 "디자인 서적을 위주로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 건축, 광고 등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온다"며 그나마 이곳은 대학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했다.

젊은 학생의 모습을 찾는 중에는 편 한 책을 들고 거리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홍성희 씨에게 헌책방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물었더니 "전공과 관련해 패션 잡지를 사러 오는데 시중 서점보다 종류가 더 많고, 지난 잡지나 외국 잡지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며 가끔 헌책방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개강을 맞아 대학생들이 책을 사는 모습을 기대하고 갔던 헌책방 거리에서 기대와는 다른 모습에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새로 만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꾸러미로 묶여진 책들을 보면서 참고서 등을 묶어 놓았던 어릴 적 추억 한 조각이 떠오르기도 했다.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느긋한 시골 장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동대문 헌책방 거리.

이번 가을엔 소중한 사람과 함께 모르는 누군가가 밑줄 긋고 돌려가며 봐 온 손때 묻은 책을 찾으려 동대문 헌책방 거리를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류경화 기자
jinghe86@dongguk.edu



헌책방 속 보물, 교재를 찾자!

그 학생의 사정(事情). 동순이는 개강을 맞아 이번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아 보고자 수업에 들어가 학구열을 불태운다.

하지만 강의별로 준비해야 할 교재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한 부담은 날로 늘어 간다. 새 책을 사려하니 돈의 부담은 커지고, 복사를 해서 가지고 다니자니 감당이 되지 않는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교재구매에 대한 고민을 하기 마련이다. 수강 정정이 끝난 요즘, 다량판 서점은 새 책을 사려는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새로운 수업을 시작하는 설렘에 신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강의를 위한 교재 값에 학생들의 부담은 커져가고 있다. 학생들의 교재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요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다른 학생이 내놓은 책을 사기도 하고 자신이

사용했던 것을 팔기도 한다. 하지만 학교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이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땐 헌책방을 뒤져 자신이 찾고자 하는 교재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으로 인해 헌책방들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대학전공서적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우리학교와 가까운 헌책방은 을지로6가 평화시장 대로변의 헌책방 거리에 있는 헌책방들이다.

50여개의 헌책방이 모여 있는 이 거리의 가게들 중 4곳은 대학교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필요한 책을 잘 찾지만 하면 원가의 50%~70% 가량 싸게 책을 살 수 있다.

단, 각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개론 서적이나 전공서적들은 비교적 찾기 쉬우나 일반교양 교재들은 보편적으로로는 유통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요즘은 오프라인 헌책방과 함께 대학 서적을 보유한 온라인 홈페이지 또한 활성화 돼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책을 사고파는 사이트인 대학서적닷컴(<http://www.univbook.co.kr>)은 전공서적, 교양서적, 중고 책들을 직접 등록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한다. 판매 등록은 무료이고 직거래와 안심거래가 있어 구매 시 선택할 수 있다.

헌책을 마냥 남이 쓰던 것이라고 거부해 버리기에는 매력이 너무나 많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사람들을 헌책방으로 꾸준히 이끄는 매력 중 하나이다.

이번 학기에는 헌책방으로 발길을 돌려 알뜰하게 교재를 구입하고 알찬 한 학기를 시작해 보자.

문서영 기자
syooob@dongguk.edu

책을 저렴하고 알차게 구입하는 방법

헌책방은 이제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온라인 헌책방을 이용해 구매자들이 좀 더 편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헌책방 정보를 알아보자.

△ 고무마 서점(<http://www.goguma.co.kr>)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2가에 위치한 고무마 서점은 참고서 매장, 잡지·만화 매장, 본 매장으로 나뉘어 국내 최대규모의 참고형 헌책방을 자랑한다.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찾아가갈 시에는 미리 사전 주문을 한 후 찾아가면 원하는 책을 구매할 수 있다.

고구마서점을 찾아가는 방법은 △지하철=지하철5호선 신금호역 1번출구로 나와 대경정보산업고등학교 방면으로 150m, 지하철 3호선 금호역 2번출구로 나와 성동05번 초록마을버스 이용해 신금호역 하차 대경정보산업고등학교 방향으로 150m △버스=0212번 또는 2233번버스를 이용해 대경정보산업고등학교 앞에서 하차하면 된다.

△ 신고서점(<http://singoro.com>)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2동에 위치한 신고서점은 1985년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헌 책방을 운영해 오면서 지난 2002년부터 온라인 헌책방매를 시작했다. 오프라인 '신고서점' 매장을 찾아가는 방법은 △지하철=1호선 회기역 하차 외대앞 △버스=261, 147, 1217, 1222, 1215번을 이용해 갈 수 있다.

△ 북코아(<http://www.bookoa.com>)

헌책 공유홈페이지인 북코아는 온라인 홈페이지 상에서 회원들끼리 책 판매 및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회원 23만 232명이 가입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등록된 책만 해도 50만 2,495권에 달한다.

다른 헌책방 홈페이지와는 다르게 온라인 홈페이지만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판매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강지혜 기자
lamj713@dongguk.edu

동국대 출판부 발간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1 동국총서 08
정법안장수문기
지상(이재경)·스님(윤길)
2006/ 국판/ 234면/ 10,000원
ISBN 89-7801-177-2 94220

총 6권으로 구성된 <정법안장수문기>는 일본 조동종의 종조인 도겐(道元:1200-1256)의 법어집 성격을 띤 저술로 그의 제자 예조(1198-1280)가 스승의 가르침을 3년간 정리, 기록하여 전해온 책이다.

도겐의 <정법안장>은 내용으로 매우 난해하고 반세간적인 성격이 강해 민중에게 어필하여 대중화되기 어려운 반면, 예조의 <정법안장수문기>는 도겐의 육성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한문체가 아닌 일상적 언어로 주제별 대화법 형식을 빌려 전하고 있어 불교를 모르는 초심자라 해도 불교의 진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무상관과 청빙사상, 그리고 도겐의 대표적 선사사상이라 할 수 있는 지관타자와 신심탈락에 대하여 잘 묘사되어

있으며, 특히 도겐의 선사상 중 지관타자와 신심탈락의 법은 일본 선종사적으로 '도젠선'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사상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책은 중세 일본의 혼란한 시대에 새로운 사상을 갈망하던 민중적 염원을 바탕으로 제창된 신불교(정토종·정토진종·일련종 등)의 타락신앙과는 그 방향을 달리하여,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선종의 자력신앙을 중심으로 철저히 정법만을 고수하며 수행분위의 구도정신으로 민중생활로의 사상적 외연을 넓혀나가는 초심자라 해도 불교의 진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무상관과 청빙사상, 그리고 도겐의 대표적 선사사상이라 할 수 있는 지관타자와 신심탈락에 대하여 잘 묘사되어



2 동국총서 17
목조선의 이론과 실제
길호규 지음
2006/ 국판/ 308면/ 12,000원
ISBN 89-7801-176-4 94220

종교가 철학과 구별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실천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실천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선은 가장 종교적인 특징을 구비하고 있다. 그 특징이란 곧 좌선 수행이다. 좌선을 떠나서는 선도 없고 선수행도 없다. 좌선을 무시하고는 어떤 선도 존립할 수가 없다. 간화선도 위빠사나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얼마만큼 강조하느냐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좌선을 강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가운데서도 좌선을 중시하고 좌선을 수행의 행위로 삼으며 좌선을 깨침으로 간주하는 수행이 목조선 수행이다.

목조의 의미는 본래 깨어 있는 좌선을 의미한다. 목이 좌선하고 있는 몸의 모습이라면 조는 성성하게 깨어 있는 마음의 모습을 가리킨다. 그래서 목조는 목의 조라는 수식 내지 한정 관계가 아니라 목과 조라는 대등한 관계이다. 선에서 늘 그렇듯이 몸과 마음은 경중의 차이가 없다. 이것이 신심일여(身心一如)의 도리이다. 육체의 측면만 강조하다보면 그 수행은 육체운동으로 흘러버릴 것이고, 마음의 측면만 강조하다보면 명상이요 철학으로 흘러버리기 쉽상이다. 선이 단순한 육체운동만도 아닌 것은 안심입명(安心立命)과 깨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단순한 마음훈련만도 아닌 것은 종교로서 자기구제는 물론이고

타인의 구제를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선의 성격이 자각(自覺)과 자타(自他)라는 대승정신의 발로임을 발해주는 까닭이다.

그 모습이 가장 전형적으로 잘 구현된 것이 곧 좌선이다. 좌선이야말로 가장 여법한 육체의 자세이면서 가장 여법한 마음의 조화가 때문이다. 그래서 올바른 좌선은 올바른 육체의 자세에서 나오고 올바른 육체의 자세에서 올바른 좌선이 이루어진다. 또한 올바른 좌선은 올바른 마음을 지니게 하고 올바른 마음은 올바른 좌선으로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좌선은 육체이고 마음이다. 이것이 지관타좌(只管打坐)이다. 지관타좌는 바로 목조선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용어이면서 그 행위이다. 이 지관타좌의 좌선은 육체의 수행이면서 마음의 깨침이다. 그래서 좌선이 없는 수행은 수행도 아니고 목조도 아니다. 이러한 목조선이 오늘날 불교내에서조차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하다. 그것은 좌선수행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목조선의 성격과 그 특징 그리고 목조선 수행의 실제에 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두었다. 이를 통해서 목조선과 목조선 수행에 대하여 다소나마 이해의 안목이 생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불교문화론**
회영해(賴永海) 지음/박영록 옮김
2006/ 신국판/ 548면/ 25,000원
ISBN 89-7801-156-x 9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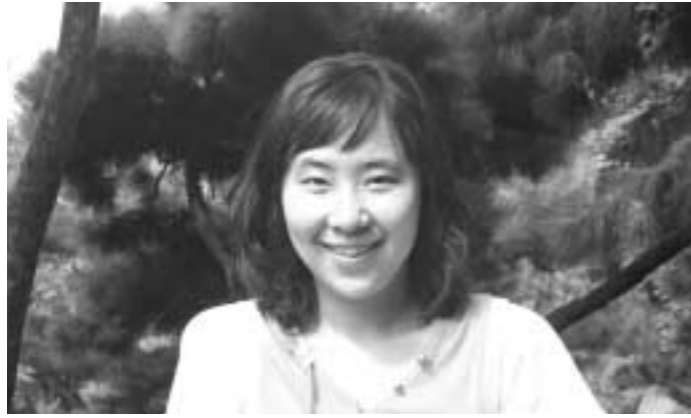
<중국불교문화론>은 주로 불교와 중국 전통문화의 상호관계로서, 불교가 중국화 하는 과정과 함께 역으로 불교가 중국 전통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하는 점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고찰을 위해 회영해(賴永海)교수는 도교와 유학 등 학술·철학·시문·소설·희곡·서에·그림·조각·건축 등 중국 문화 전반과 불교와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필자는 고대중국불교의 진면목을 생동감 있게 재현해 내고 있다.

<중국불교문화론>에서는 이처럼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단순한 사례 소개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책 전체를 통하여 본체론(本體論)의 개념을 일관되게 적용시키고 있다. 저자는 불교의 중국화, 그리고 중국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본체론이라 보고 통일적 조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지는 않았지만, 중국 불교의 중요하면서도 보편적인 특징을 저자의 폭넓은 관점을 통해 예리하게 지적한 점은 독자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대중성과 학술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번역 과정에서도 상세한 역사적 주를 담아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저자인 회영해교수는 중국 남경(南京) 대학 철학과 교수로서, 당대 중국의 대표적 불교학자 중 한 사람이다. 이 책은 90년에 출간된 <불도시선(佛道詩禪)>을 기본으로 하여, <불학(佛學)과 유학(儒學)>을 증보한 것으로서, 하나하나의 빛을 발하는 수십 편의 논문들이 한 권의 책 속에 녹아 있는 역작이며 아직도 진화의 과정에 있는 그의 풍부한 철학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발걸음



“힘들게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현실에 만족해” 나의 오른쪽 마음이 말한다.
 “어려워도 다시 한 번 해 볼래. 지금에 안주하고 싶지는 않아” 나의 왼쪽 마음이 속삭인다.
 남들보다 1년이 늦은 결정. 양 갈래 길목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던 나는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 어렵사리 얻은 기회가 그저 그런 결과를 낳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동시 통역사라는 꿈을 가진 내가 갑자기 사회과학분야로 전공을 바꾸고 학생 기자가 된다는 것. 어찌 보면 ‘똥값’은 친구들의 표현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사회의 현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글로 기사화해서 전하는 것과 다른 언어로 통역해서 전하는 것이 방식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 같다고 생각했다.

학생의 역할과 학생 기자의 역할. 두 가지를 모두 소화해야 했던 지난 1학기는 단순히 ‘바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때론 나를 주춤하게 했지만,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새로운 나’를 알았고, 소중한 인연들을 얻었다. 전보다 훨씬 더 외향적으로 변한 나를 마주하고 신문사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에 감사한다.
 또한 하루하루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모든 것이 즐겁고 설렌다. 가끔 의욕만큼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 실망할 때도 있지만, 선택을 믿고 존중할 줄 아는 내가 늘 그러왔던 사람이 되고 있기에 결코 후회하지는 않는다.
 새침한 스물한 살. 고민 많은 스물한 살. 울고 있는 스물한 살. 웃고 있는 스물한 살. 꿈꾸는 스물한 살의 모습 모두가 지금의 나를 이루는 소중한 모습들이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보람찬 오늘과 활기찬 내일을 만드는 멋진 발걸음을 할 것이다.
 “완벽한 지도를 가져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은 가끔 나를 북돋아줄만한 도구가 필요할 때 읽는 한비아의 ‘중국견문록’이란 책의 한 구절이다. 내가 가고자하는 방향과 길. 모르면 물어보고, 잃으면 헤메면서 불안해하기보다 더디지만 정성스럽게 나만의 지도를 그릴 것이다.



류경화 기자
jinghe86@dongguk.edu

더욱 책임감을 지닌 ‘프로’로 거듭날 것



“읽는 것이 있으면 읽는 것도 있다.”
 나는 이 평범한 말의 진리를 지난 수습기간을 통해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나의 6개월간의 기자생활은 그 당시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지나가 버렸다.
 타 대학 신문사 기자였던 언니로 인해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기자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일반 대학생들과는 달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프로 같은 모습에 반해 나 역시 대학에 오자마자 신문사의 문을 두드렸다.
 신문사라는 곳은 옆에서 지켜봤을 때와는 다르게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취재와 기사마감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일정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내 취미를 즐길 시간도 적었고 심지어 내 학점을 관리하는 것마저 험겨운 생활이었다. 이러한 생활로 인해 수습기간동안 ‘내가 여기에 있는 일이 옳은 일인가, 나의 스무살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곤 했다.
 하지만 이 시간에서 나는 잃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막연하게 언론인에 대해 동경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학기 중 틈틈이 있던 기사·취재 교육과 방학 동안 현장 기자에게서 받았던 기자교육은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취재를 하고, 중국 예사오원 국가종교국장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나를 보고 ‘동문’이라며 인사하는 예사오원을 보면서 마음속의 애교심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30년 근속상을 수상한 선상규 중무야트홀 스포츠센터 운영본부장과 퇴임하는 이상현 교수를 인터뷰 할 땐 그들에게서 나오는 연륜을 통해 인생에 대해 배울 수도 있었다.
 이제 수습을 정리하고 정기자가 되는 이 시점에서 나는 과연 지난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한다. 이제 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기사가 더욱 더 책임감을 느낄 것이기에 잃는 것이 더 많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후회하지 않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뛰어 다닐 것이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나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담는 기자 될 터



나는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자칫하면 그릇된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먼저 세상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려한다. 그런면에서 학생기자 생활은 ‘내 인생의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 신문사는 세상에 대해 막연히 동경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며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6개월 전, 나는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았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다잡아가며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청탁과 취재, 폰눈으로 지새우는 조판작업은 나를 지치게 만들기도 했고 하고 싶은 일들을 뒤로한 채 항상 분주하게 캠퍼스 안을 누벼왔다.
 때로는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나는 긴 레이스에서 필요한 끈기를 가져야만 했다. 더불어 힘든 신문사 생활을 즐길 줄 아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애썼다.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서 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회로애락을 맞보면서 살아

나를 옹골치게 머물게 했다.
 정기자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고민이 끊이지 않는다. ‘정말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지만 내 선택을 믿으려고 한다. ‘나’라는 그릇에 담긴 것들을 비우는 작업이 끝났을 뿐, 새로운 것들을 담는 것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디더라도 꾸준히 한 발 한 발 내딛어 갈 것이다. 진한 땀과 인내 그리고 스스로 뽑아내는 열정으로 시시때때로 손끝에 닿고 눈에 머물다 간 것들을 마음으로 품어내겠다.

손희희 기자
sonhee1347@dongguk.edu

탈수습기
 기자다운 기자가 되겠습니다

‘현장’이란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기자로

배우는 무대에서 있을 때 가장 빛난다.
 배우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곳이 자신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연극 무대라면 나를 가장 돋보일 수 있게 해주는 곳은 ‘신문사’이다. 대학에 갓 입학해 내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무대로 나는 신문사를 택했다.
 자신 있게 올라간 첫 무대 뒤엔 보람과 함께 좌절이 있듯, 새롭게 시작한 신문사 생활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수업, 취재, 기사마감, 조판으로 꽉 찬 매 주를 보내면서 자신감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신감이 푹푹 무너져 있던 나는 점점 지쳐만 갔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선배를 따라 취재 갔던 인권영화제 현장에서 북적대는 사람들 속에서 취재를 할 생각보다는 설레는 감정만 앞섰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을 때는 계속 되는 질문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나의 부족함을 실감하는 나날들이 늘어가면서 움츠러드는 날도 많아졌다.



그러한 나를 키워준 것 또한 6개월간의 수습기간이었다. 취재현장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은 때론 나에게 자극제가 되기도 했고, 따뜻한 충고가 되기도 했다.
 배우는 무대에서 있을 때 가장 빛난다. 배우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곳이 자신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연극 무대라면 나를 가장 돋보일 수 있게 해주는 곳은 ‘신문사’이다. 대학에 갓 입학해 내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무대로 나는 신문사를 택했다.
 자신 있게 올라간 첫 무대 뒤엔 보람과 함께 좌절이 있듯, 새롭게 시작한 신문사 생활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수업, 취재, 기사마감, 조판으로 꽉 찬 매 주를 보내면서 자신감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신감이 푹푹 무너져 있던 나는 점점 지쳐만 갔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선배를 따라 취재 갔던 인권영화제 현장에서 북적대는 사람들 속에서 취재를 할 생각보다는 설레는 감정만 앞섰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을 때는 계속 되는 질문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나의 부족함을 실감하는 나날들이 늘어가면서 움츠러드는 날도 많아졌다.

현장에서 각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기자이기에 얻을 수 있는 나만의 특권이자 보물이었다.
 6개월 동안 내가 얻은 또 하나의 보물은 나를 지탱해주는 신문사 사람들이다. 같은 고민으로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동기들과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로 따뜻한 관심을 아끼지 않는 선배들이 내민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섰다. 신문사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게 새로운 인연에서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제2막이 오르려 한다. 앞으로 내게는 수 없이 많은 취재현장이라는 ‘무대’가 펼쳐질 것이다. 더욱 커진 책임감으로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 질 테지만 그 모든 것이 분명 보람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돌아올 것임을 나는 안다. 나를 위한 이 무대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표현해 낼 준비가 된 주인공 ‘최미혜 기자’는 오직 스무살의 빛나는 연극무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것이다.
 조명 in.
 최미혜 기자
lmisonaral@dongguk.edu

독자를 향한 두드림은 이제 시작!



‘하나, 둘, 셋 찰칵’
 자신이 없어 떨려 오는 내손이 감싸고 있는 것은 우리 고구려를 담은 카메라. 여름방학 중 학교에서 주최한 고구려 유적 탐방 사진기자로 참여한 나는 6박 7일 동안 고구려인들의 기성과 혼을 담아오고자 열심히 셔터를 눌렀다. 중국 곳곳의 흔적을 되짚으면서 카메라의 작은 프레임 안에서 넓디넓은 고구려를 보았다. 이처럼 6개월 동안의 신문사 생활도 동국대학교 속의 평범한 학생으로 남아 있었을 나에게 더 넓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자 대학에 들어와 의욕적으로 시작한 신문사 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취재와 밤샘 조판작업,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긴장감으로 하루하루가 쉴 틈 없이 지나갔다. 또한 한심하게 느껴지는 내 자신 또한 참을 수 없었다. 기자로서 가진 첫 문과대 학생회장 인터뷰 도중 긴장감으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준비해 간 질문지는 머리에 서만 맴돌 뿐이었다.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하지 못하고 나의 미숙한 모습에 부끄러워 인터뷰 도중에도 쥐구멍이라도 틀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지켜있는 나에게 또 다음날을 신문사에서 맞이하게 해주었던 것은 취재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더 커져가는 나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디지탈포럼’에 취재 갔을 때 본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을 주도하는 지식인, 기업가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치열함 속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것을 보고 살았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 계속 이어지는 취재로 힘들어하던 나에게 말없이 어깨를 빌려주었던 동기들 또한 신문사 생활의 큰 힘이 되었다.
 2006년의 내가 사진기의 프레임 속에서 이천년 전의 고구려를 보았듯이 이제는 내 눈이 작은 프레임이 되어 세상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양하게 비출 수 있었으면 한다. 나는 이제 떨렸던 내 손을 다잡아 자신있게 사진기의 셔터를 누를 준비가 되었다. 정기자 이승이의 독자를 향한 두드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
 이승이 기자
banacream@dongguk.edu

처음의 떨림을 기억하며 오늘도 달린다



‘서해고등학교 학보사 기자 문서영’과 ‘동대신문사 기자 문서영’은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사실, 직접 일을 하기 전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학보사 활동은 힘든 점도 있었지만 신문제작의 절반 이상을 선생님께 의존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때문에 ‘내가 발로 뛰어서 만드는 신문을 만들어 보고 싶다’, ‘비슷한 일도 해 봤는데 어렵지는 않겠다’라며 신문사에 지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뻘뻘하고 힘든 일정과 많은 해야 할 일들은 ‘갈을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기획면의 한 기사를 처음으로 혼자 맡게 된 서울 락페스티벌 취재는 잊지 못할 기억이다. 인터뷰를 해왔다고 마음을 놓고 만났던 학생기획단 c.wave 소속 학생과의 인터뷰에서는 취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욱 분발했던 c.wave 학생단체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들의 음악과 공연 연출에 대한 열정을 느끼며 배우는 것이 많았다. 신문 발행 후에는 c.wave 단장의 고맙다는 말을 들어 기쁘고 공연이 차례차례 진행되는 것을 볼 때는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뿌듯했다.
 고등학교 시절엔 학교 기관같은 곳에 갈 일도 없었고 아이템 때문에 고뇌하는 일도 없었다. 만나는 사람은 학교 안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어쩌다 대학탐방 정도가 외부 취재의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그 반대이다. 아이템 선정, 취재, 기사마감, 조판까지 비슷한 일주일을 보내는 듯 하면서도 새로운 경험들이 끊임없이 들어온다. 지난달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예사오원 국장 기자간담회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접견실에 가득한 관제자와 기자들 사이에서 마이크를 쥘 질문을 하는 가슴 떨리는 경험도 해 보았다.
 고등학교 때보다 얻는 것이 많은 만큼 고민도 많다. 고민이 많은 만큼 ‘이 곳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내게는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정기자’라는 임무가 주어진다. 고민을 팝집기보다는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도 마음을 굳게 먹고 달려 나가려 한다.

문서영 기자
syoo@dongguk.edu

“나는 팔방미인을 꿈꾼다” 앞으로 전진전진~



요즘 연예인들은 무엇이든 잘 하는 재주꾼이다. 그들은 음악공 개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다가도 드라마 한 장면에서는 연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대중을 웃기기까지 하는 팔방미인이다. 나는 공과대에 입학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나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러던 중 수습기자 모집 광고는 나의 희망사항을 실현 시킬 수 있는 길이라 믿고 서슴없이 앞만 보고 걷기 시작했다.
 신문기자의 일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던 나는 신문사 일을 할 때 마다 온갖 걱정이 시달렸다. 교직원을 만나는 일과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취재하기 등 자신감만으로 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취재원과 인터뷰에서는 상황에 맞춰 질문을 해야 하지만, 요령이 없었으니 실수를 연발했다. 나는 신문에 관한한 아기 걸음마 수준 밖에 못 배, 처음해보는 일의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던 중 버시바우 주미대사에게 대학신문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자리에 참석했다. 처음 배운 사진기술을 실전에 사용하는 첫 취재였기에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진기자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해’라는 선배의 말을 되뇌며 한 장 한 장 찍었다.
 이번 계기로 사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사진 찍는 게 즐거워 졌다. 그리고 내가 사진을 찍기 위해 움직일 때 더 이상 남의 시선이 꺼려지지 않게 되었다.
 최근 갤러리로 동문 문화예술인을 취재하려 갔다.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인터뷰 준비가 막막했다. 인터뷰를 하는데 어려운 미술용어에 고전했지만 전문적인 것은 포기하고 질문의 방향을 돌려 잘 끝낼 수 있었다. 모르는 사람을 대면하고 오랜 시간 이야기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가장 일상적인 질문부터 출발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보니 어색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다.
 나는 팔방미인을 꿈꾼다. 지금까지의 수습기간은 나에게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찾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기자 사령은 신문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나의 팔방미인으로서의 자질을 점점 밝히워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출발이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얼린글터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만평, 4대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문구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5박 6일 동안의 국토종단 사이클 선후배 사랑 몸으로 느낄 수 있어

이번 여름 방학 때 난 화과 사람들과 '국토종단 사이클'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행사는 34대 학회 이후, 6년 만에 부활된 것이다. 왜냐하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도 컸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40대 학회 선배들은 방학 내내 각 지방에서 경찰로 계시는 선배님들에게 후원을 부탁했고, 또 종단 코스를 두 번이나 답사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었다. 이 행사에 총 47명이 참가하였고, 2000여 만원 이상의 경비가 들었으며, 5박 6일간 약 540km의 코스를 달리기로 계획하였다.

1시 동국관 앞에서 출발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우리는 앞뒤 차량의 인솔 아래, 1번 국도를 중심으로 서투른 출발을 시작했다. 앞뒤 간격이 벌어져서 대열 사이에 차가 끼기도 했고, 교차로에서 차량이 끼어들어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다. 또 오르막길이 너무 길어서 다리가 풀릴 정도로 힘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무전기를 들고 사이사이에서 인솔해주시고, 앞뒤에서 긴장을 놓지 않고 운전해주신 형들 덕분에 5박 6일간 사고 없이 무사히 전원 완주할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을 계기로 정말 많은 걸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 쉬는 시간마다 간식을 챙겨주시고, 교차로를 지나

침 때마다 몸으로 막아 주시는 선배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여행 내내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끝까지 따라와 준 후배들도 정말 대견스러웠다.

그리고 도착지마다 수소를 제공해주시고, 아침, 저녁을 푸짐하게 대접해주시고 환대해 주신 현지의 선배님들의 후배 사랑도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 울산에서는 울산청장으로 계신 선배님이 경찰차로 에스코트까지 해주셨다. 그 때 느꼈던 짜릿한 전율을 잊을 수 없다.

이번 여행을 통해 그동안 잊혀져 왔던 젊음의 패기와 열정이 되살아난 느낌이다. 학생이라든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학우 여러분들도, 이러한 여행을 통해, 잊혀진 열정과 패기를 일깨워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본다.

이영재 (사과대 경영2)

지식 습득뿐만이 아닌

'인간'을 형성해 가는 학교 교육 되길

9월 1일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나 같은 신입생들은 중·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하여 적응하는 데 조금 힘이 들겠다. 하지만 이런 자유로운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하는 공부,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며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또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조금

더 심화된 수업을 듣고 공부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만 하지는 않는다. 학교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어른에게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운다. 하지만 요즘의 학교에서는 너무 공부만을 중시하고 학교의 다른 사회적 기능이 많이 쇠퇴된 것 같아 안타깝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단순주입식 교육만을 행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일이고, 교권은 땅에 떨어져 학생이 선생님에게 큰소리를 치기 일췌이다.

박중화 (사과대1)

'된장녀'를 통해 살펴보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

방학이 끝나갈 때쯤부터 '된장녀'라는 단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나의 주목을 끌었다. 된장녀는 허영심에 가득 차 외제나 명품을 좋아하는 여성들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된장녀의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자. 된장녀의 배경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외래문화에 노출된 우리사회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출범하고, TV와 극장에서는 외국 프로그램과 영화를 상영해주고,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

으며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갔다 온다. 그러면서 들어온 외래문명들이 조금씩 우리 문명에 안착하고 있는 사이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를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알게 모르게 외래문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교육 받아 왔다. 그래서 몇몇 여성의 노골적 외래문명 선호에 외래문명의 현주소를 자각하게 되었고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또한, 사회자변에 깔린 남성중심주의와 여성들의 외모지상주의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남성우월주의와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는 된장녀를 사람들의 관심으로 끌어왔다. 이러한 몇몇 여성들을 보고 많은 이들은 비판을 하며 집단을 형성했다. 된장녀와 된장녀가 아닌 자들..... 된장녀가 아닌 자들은 된장녀를 비난하며 된장녀를 깎아 내리면서 자신들은 그들보단 훌륭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쾌감을 느낀다. 된장녀는 우리사회와 연관을 가지고 사회 현주소의 문제들을 일러준다. 된장녀를 통해 우리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준호 (사범대 지교2)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새학기 다양한 정보 알 수 있어

신문의 1면이 마음에 들었다. Top 기사가 학교 공사에 관한 기사였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공사가 이뤄졌는지 정확하게 다뤄주고 있어 좋았다. 그러나 예산을 세분화 해서 취재해 기사에 실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프로야구에서 200승을 달성한 '송진우' 동문에 대한 기사는 동문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알려준 것 같아서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곳곳에 교양영역 신규강좌 개설과 같이 여러 가지 행사 등 학생들이 잘 알기 어려운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동약로'에서 몸소 느끼고 있던 학교의 고질적인 공간문제를 꼬집어 다뤄 주어 시원함을 느꼈으며 '메이리' 역시 이번에 정부가 새로 제시한 '비전 2030'이라는 정책을 대상으로 이슈가 된 한 초능력자의 거짓 발언과 관련지어 비유한 점이 풍자적 요소가 짙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퇴임교수 인터뷰를 통해서도 수 십년간의 교직생활에서 나오는 연륜을 느낄 수 있었고 신입교수의 간략한 인사말에서는 일반 학생으로

서 알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 좋았다. 이런 기회를 더 살려서 앞으로 동대신문을 통해 교수와 학생의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러나 지난호에서 아쉬운 것은, 한눈에 보기에라도 활자로 가득차 보기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한 점이다. 솔직히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보기 불편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았다. 좀 더 알차고 중요한 내용들로만 구성해, 보기에 쉽고 편한 신문이 되어 학생들의 호응을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신문이 되기를 바란다.

손희삼 (문과대 영문1)

중앙도서관 9월 독서토론 프로그램 안내

-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 의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9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1.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독서토론을 원하는 독서를 신청받아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 2. 일 정
 - 일 시 : 9월 26일(화) 오후4시~6시
 -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1층) 특수자료실
 - 진 행 :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준영 교수
 - 선정도서 :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 정주영 저, 제3기회 1991

- 정 원 : 10명
- 3.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관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신청순으로 모집하며 토론도서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 4. 유의사항
신청도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독서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논단



임진규
사과대 신병4

우리학교 극예술연구회에서 정기공연 연출을 맡고 있다. 작품은 지하철 1호선의 작가 풀커루드비히가 쓴 '장벽위에서 옛 보기'(원작: Auf Der Mauer, Auf Der Lauen)'란 작품이다. 결코 공연을 소개하고자 함은 아니다. 작품의 내용은 통일 과정을 겪으며 성장해 가는 소녀(산드라)가 동독과 서독을 오고 가는 과정 중에 겪는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한세덕 선생님께서는 광복이 도둑같이 왔다고 하셨는데, 독일의 통일이 바로 그렇게 왔다. 작품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어떤 불안감이 항상 같이 했다. 우리의 통일 역시 그렇게 도둑같이 올지 모르겠다는 걱정도 들었다. 지금 주위의 친구들에게 작품이야기를 하면 "누가 보러오겠냐?"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통일 이야기

더 나은 희망을 위해 지금 준비합시다!

는 늦그릇처럼 취급한다. 우리는 이렇게 통일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황석영의 작품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독립운동이 박 터지게 벌어져도 민초들 이야 입에 풀칠하고 살아남아야지."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 우린 나의 직장과 밥벌이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통일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되어도 관심조차 없다. 준비를 한다는 것은 희망이다. 저녁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손길, 아이의 소꿉가방,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자 그리고 공연을 준비하는 나. 자식이 맛있게 먹어주길, 소꿉이 재미있기를, 대통령이 되기를, 관객들이 많이 들어주기를. 그렇게 일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

오래전 텔레비전에서 아이들에게 통일이 되면 뭐가 좋겠냐고 하니,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것 같다고 하는 친구와 "우리가 으름이 될 거예요"라고 말한 친구들이 있었다. 통일이 되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만으로 국한 시키면 그 희망이라는 것은 남과 북을 허문 담을 가지고 다시 다른 나라들과의 담을 쌓는 꼴이 될 것이다. 통일의 희망은 담을 허무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희망, 준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준비를 위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조금 더 큰 생각을 해야 한다. 생명의 지속은 다양성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도 그렇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사회라는 곳이다. 하지만 국제 사회를 획일화 시키려는 자유주의와 이를 위한 전쟁, 이에 동참하는 한국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해외 공연과 영화를. 이들은 단작만 생각한다. 이와같은 획일화는 심히 우려스럽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추구하려는 마음가짐, 그것이야말로 이후 통일 한국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요즘 준비하고 있는 정기공연 극중 인물 산드라의 대사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바로 그거예요. 한번 여기서 떠나요. 이 모든 걸 높은 데서 보는 거예요. 허발라야에서, 달에서, 호주에서, 베니스에서, 여태까지 내내 난 이 명칭한 장벽에서 오른쪽에 속할지 왼쪽에 속할지 머리를 썩였어. 마치 이 세상에 베를린벽에 얹은 것처럼. 언제나 한 등지 속에만 처박혔으면, 눈이 멀고 바보가 되는거야!"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획일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그러한 노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독자 사진첩



바람에 몸을 맡겨... 날아오르기까지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순간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많지만 젊음의 힘으로 극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동아리 '바람소리'

보리소

제 빛깔을 잃어가는 교정

아주 모처럼 동아에 올랐다.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한 그 날 이후로 도서관에서 책 한 권도 대출받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지만 동아의 가파른 길을 오르는 날은 여전히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자꾸 모습을 바꾸어가는 교정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재미이다. 이번에는 커피 전문점이 내 눈에 띄었다. 밥보다 커피를 더 좋아하는 나야 더할 수 없이 반가웠지만 빨간 차양 아래 마련된 커피 전문점을 바라보자니 어찌 마음 한 구석이 쓸쓸해진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집은 그 속

에 살고 있는 사람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순간들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장소이고, 그 사람의 정신을 담아내고 진열하는 전시공간이기도하다. 그래서 보잘 것 없는 오락살이 한 채라도 옛 사람들은 ○○헌이니, ○○당이니 하며 이름을 붙였다. 아무리 뜯어봐도 특별할 것 없는 공간이건만 자기만의 멋과 정신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패 개성이 넘치는 삶의 방식이었다. 하물며 대학 건물과 교정임이라. 동아는 그 자체로 내세울 것이 너무나 많은 대학이다. 감히 말하건대 천 년하고도 몇 백 년에 걸쳐 이 땅 사람들의 삶을 지켜온 종교와 사상과 문화를 맘껏 끌어

오고 맘껏 응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대학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불교를 신앙하느냐 여부는 잠시 접자. 그 고유의 색깔을 캠퍼스 곳곳에서 다양하게 변용하고 살려낼 수는 없는 것일까. 차 한 잔을 마시는 공간이라도 다른 대학에서는 절대로 흉내 낼 수 없는 동아만의 개성을 맘껏 부릴 수는 없었던 것일까.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대학교정은 한번 거쳐 간 이들에게는 영원히 청춘이 만발하는 꽃밭이거늘 물개성 브랜드 커피 전문점이 웬 말인가.
이미령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 향	
금주의 식단	9/11	제육비빔밥 (2000) 함박스테이크 (2500) 닭도리탕 (2000)	김치찌개, 해물경단 (2000) 돈육피망잡채(달걀) (2000) 뽕치킨나물비빔밥 (2000)	된장찌개 (3200) 떡볶이불고기 (3800) 두부김치 (3500)	김치콩나물국 (2000) 수제함박스테이크 (2900) 불낙찌개 (2900)
	9/12	육개장 (2000) 오징어달걀 (2000) 콩나물밥 (2000)	순만두국 (2000) 날치알김치볶음밥 (2000) 양념치킨 (2000)	된장찌개 (3200) 떡김치찌개 (3500) 자반우동 (3500)	양치떡국 (2500) 생야채불고기비빔밥 (2900) 우거지갈비탕 (2900)
	9/13	참치회달걀 (2000) 김치볶음밥 (2000) 불고기달걀 (2000)	돈돈뽕우거지탕 (2200) 쭈삼불고기 (2000) 신채비빔밥 (2000)	된장찌개 (3200) 꼬리곰탕 (5000) 아구찜 (3800)	쇠고기토장국 (2300) 철관오삼불고기 (2900) 닭도리탕 (2900)
	9/14	영양갈비탕 (2200) 닭갈비 (2000) 중국식볶음밥 (2000)	참치유부찌개 (2000) 불고기소스볶음밥 (2000) 제육겉튀음 (2000)	된장찌개 (3200) 삼겹살쌈밥 (3800) 삼치양념구이 (3500)	탕국 (2300) 볶음밥&탕수육 (2900) 즉석계란찜백반 (2900)
	9/15	계란말이백반 (2000) 제육쌈밥 (2000) 간짜장 (2000)	꼬치어묵국, 햄구이 (2000) 간짜장 (2000) 닭조림 (2000)	된장찌개 (3200) 술술비빔밥 (3500) 카레라이스 (3500)	어묵국 (2000) 묵채비빔밥 (2900) 즉석피안떡볶음밥 (2900)

북미주에서 더 높은 하늘을 꿈꾸다

다양한 명소와 일류대학 방문 ... 더 큰 포부 가져

지난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우리학교 학생 24명이 '제3회 북미주 총동문회 초청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는 북미주 총동문회(회장=김경재, 농학69졸)에서 연수비 전액을 부담하여 미국에서 2주간 동·서 주요대학을 탐방하였으며 LA, 뉴욕, 워싱턴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체험을 했다. 북미주 총동문회 초청 해외연수는 매년 시행되며 내년 1학기 중 선발공고가 날 계획이다.

편집자

마치 할리우드 스타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LA, 연인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세계적인 미향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자존심 뉴욕... 그리고 뉴욕의 자존심 맨하탄!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웃음이 번지게 하는 미국의 도시들이다. 2006년 여름, 북미주 총동문회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24명은 각자의 굳은 다짐과 마음 속 설레임을 가지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으로 지칠만도 했지만 지역 선배님들의 열정적인 환영과 배운 그리고 24명 모두의 기대감으로 힘차게 우리들의 일정은 시작되었다. LA의 비버리힐즈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산타모니카 해변, LA CITY HALL 등을 방문하며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장을 받았다. 짧은 시간 동안 북미주 전역을 돌아다녀야 했기에 일정이 바쁘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매년 가는 곳마다 새로운 활력소를 얻었기에 우리들의 두 눈은 항상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언제나 찬란한 조명으로 밤거리를 밝히고 있는 라스베가스는 새벽이 한참 지나고 나서도 네온사인은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열정 또한 사그러들 기미를 보

이지 않았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정말 하나의 모형을 보는 듯 했다.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의 모습에서 그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부서별 건물들에서 조차 웅장함과 함께 예술적인 건물의 미(美)도 직접 볼 수 있었다. 미국의 실질적인 중심 뉴욕과 마치 킹콩이 금방이라도 나올 듯했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과 경제의 허브라고 불리는 맨하탄의 증권거래소, 뮤지컬의 본고장 브로드웨이, 그리고 타임스퀘어 광장 중심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판 자리에서 유난히 번쩍 거리는 'SAMSUNG'의 로고를 보고 있노라니 세상의 전부를 얻은 것 같이 환황하고 기분이 좋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대자연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광활한 대지가 마치 영화관에서 보는 듯 한 작각을 일으키게 했던 그랜드캐년과 설새없이 떨어지는 물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 속까지 시원함을 느끼게 했던 나이아가라 폭포, 이곳이 마치 무릉도원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었던 요새미티 공원, 이곳이 과연 호수인가 바다인가 착각을 일으켰던 온타리오 호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환호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레었다. 자연이 조금만 심술을 부려도 나약하게 되는 우리 인간이지만 자연의 위대함에서는 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미국의 일류 대학을 탐방하면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힘찬 도약과 비상을 꿈꾸었다.

UCLA, COLUMBIA, NYU, 미육군사관학교, 미해군사관학교, 동국로얄 등, 방송매체들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학교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미국의 대학교를 탐방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은 꼭 한다는 점이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공부할 하는 모습에서 나 자신을 반성 하게 되었다. 또 한가지는 그들의 열정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내가 배운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열정'이다.

이번 장학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김경재 선배님은 "앞으로 우리는 더욱 발전해야 하며 그 선봉장으로 우리학교 학생들

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번 북미주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포부와 꿈에 대해 한층 깊은 생각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볼 수 있듯이 한층 힘찬 날개짓으로 더 높은 하늘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김지훈(경영대 정보관리3)



달하나 천강에

세계는 평평하다는데



이승영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요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북공정 등 국가 대 국가 형식의 외교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협상에 대한 찬반 논란은 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의 파고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대처에 대한 합의가 요구되는 중대 현안이다.

돌아보면 한국의 세계화(Globalization)이 아닌 Segae-wha는 1990년대 문민정부시대 OECD 가입을 전제로 한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로 시작되어 1997년 치욕스러운 외환위기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꼭 10년이 지난 지금 한미 FTA를 중심으로 제2의 세계화(Globalization: 전 지구적 시장의 개방)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절박에 가까운 외국자본 비중, 빈부격차 심화와 중산층의 붕괴, 영어 열풍과 조기유학 러시 등 세계화가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은 실로 지대하다. 그리고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논란도 세계화의 아픈 기억이 살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100년 전에 외세에 의한 제1차 개방(개항)의 압력이 있었으나 실기하여 근대화의 기회를 놓치고, 1960년대 '무역일국'이라는 기치아래 주도적인 개방(근대화)에 의해 선진국 문턱에나마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계화에 동참함으로써 평등한 빈곤에서 불평등한 풍요를 이루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화를 둘러싼 논쟁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형태로 전략한 느낌이다. 세계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풍요를 가져오는 선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평등을 가져오는 악으로 비쳐 둘 사이에 더는 진지한 토론이나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어느 쪽이 전적으로 옳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우파는 세계화가 가져오는 경쟁력 강화와 성장의 효과에 주목하는 반면, 좌파는 세계화가 낳은 사회적 양극화 및 불평등 강화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화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나 반대를 유보하고 그것이 가져올 효과와 충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에 대한 가치판단보다는 사실판단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세계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면 한미무역협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찬성이나 반대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개방을 주체적으로 성취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외환위기와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했던 지난날의 선부론 세계화를 거울삼아 아무쪼록 바람직한 개방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화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며, 세계화의 속도와 방향을 어떻게 조절하고 그 부작용에 어떻게 대처하는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반(反)세계화나 반미의 외침이 아니라 대안적 세계화의 진지한 모색이 필요할 때이다. 더 나은 미래, 평등한 풍요를 위해 먼저 자신과 나라의 장애를 극복하자. 세계는 이미 아무런 장벽이 없고 평평해졌다.

특별기고 - 동국 100년의 회고담 ①

동국으로의 입성, 선두주자 정신을 배우다



정종
철학과 명예교수

우리신문에서는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정신의 역사와 의의를 되새겨보는 정종(1915~92세) 명예교수의 회고담을 3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정종 명예교수는 아흔을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기억력으로 동국의 '선두주자' 정신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편집자

나는 재재고등보통학교(1929 입학) 2학년 때부터 교과서를 외면한 자유독서광으로 전락(?)했다.

서양의 철학·문학·사회사상 중심의 광범위한 독서를 통하여(서양)철학에 포커스를 맞춰가던 무렵(1932

가을, 종로의 YMCA에서 '조선철학연구회'가 주관하는 스피노자(1632~1677)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리자 중학생의 몸으로 참석했다. 그날 밤의 발표자 중의 한 분으로서 '중앙불교전문학교' 철학교수며 해방 후에는 한국 박사학위 제1호가 되는 젊은 김두현(1903~81)은사를 만나 뵈고 소년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버린다. 이 전문학교에 들어가 동경의 한 대학을 거쳐 그 분의 후계자가 되리라는 결심이 그거이다.

1935년의 입학으로부터 꼭 10년이 되는 해에 해방의 복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으니 소년의 꿈은 너무나 빨리 실현된다. 인제 부족의 건국 초기라서 "어서 올라 오라"는 소리가 세군데서 들려 왔으나 소년의 꿈은 10년 전의 그것 하나뿐이었다.

전문학교 입학과 동시에 나의 장발의 역사도 시작된다. 당시 서울의 학생계의 장발은 아마도 이 '중앙불교전문학교' 학생이 처음이었고 또 그 악랄한 일제도 단속은둔하며 내 장발을 건드리는 못했으니, 해방 후 50대의 대학교수는 전후 두 번이나 단속에 걸리는 과반을 겪기도 한다.

35년 신입생 가운데는 한국 최초의 시나리오 라이터인 최금동과 신춘원에게 시 '백'으로 등단한 동갑내기 서정주가 있었는데, 마치 '중퇴'가 시인이 되는 조건인 양 착각한(?) 식민지 누습을 답습이라도 하려는 듯, 서정주는 1년 만에 수료하는 중퇴생이 된다.

그러던 그가 1958년 가을에 목막판 기술의 나의 연구실을 힘겹게 찾아와

"나 같은 사람도 모교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고 했고, 나는 그를 연구실에 보내고 백성욱 총장을 만나러 갔고, 그 다음날엔 이력서를 들고 들어서 종장실을 방문, 그 다음날부터 강의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호랑이 담배운'의 신화 같은 이야기도 있었다.

우리 후배 시인 조지훈(동탁)은 해방 후 고려대에서 우상적 존재가 되었고, 문학평론가 조현원은 <현대문학>의 주간과 모교의 교수로서 '선두주자' 정신을 심이분 발휘했다. 그 밖에는 시인 함형수, 김달진 등이 배출됨으로써 중전과 해전은 근·현대 한국 문학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하니, 여타 전문학교의 추종을 불허한다.

해방 후로 넘어와 많은 시인과 소설가와 문학평론가 배출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망주로 주목받은 문학평론가 홍기삼 총장이 그 전통을 이어 받고 여기서 또 한 번 크게 회전하여 조정래의 대하소설 3부작으로 이어져 세계문학의 큰 봉우리를 이룬다.

도합 1만 쪽이 넘는 그의 3부작을 나는 선두주자 정신의 구현체도 다른 하나라는 시각에서 독과함으로써 완전무결한 한국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걸 읽지 않은 한국인이라면 20%가 함람미달의 한국인이라고 나는 굳게 믿기 때문이다.

더욱 지난 2년간 나는 서양문학순례를 했고 또 지금도 계속 중이지만 조정래의 대작들은 노벨문학상 감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지만(몇몇 장면만 영역에서 빼버린다면) 이제는 국력이 문제다.

이야기를 다시 30년대로 되돌려보자. 당시 우리들의 발표기관이라곤 동아일보·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의 학생란이 전부였다. 나는 1936년의 부친상 충격으로부터 37년까지 '하나에의 동경', '새로운 철학의 영아' 등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에 많이 써냈는데 이 작업도 역시 모교가 견제함을 과시하는 구실을 한다.

이리하여 나는 그 당시 학생관 이용자들 중에서 아마도 선두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인하거나 동대를 떠나 어언 26년, 울 밖에서 모교의 발전과정을 지켜보면서 선두주자 정신의 회복과 복원에 더욱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교수들의 대외활동은 나의 직장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 분명하므로 3류 잡지라도 좋으니, 교명이 나가야 한다.

동대의 오늘을 있게 한 중흥조 백성욱 박사(1897~1981)는 독일의 뷔르츠부르크 대학에서 불교철학연구로 학위를 취득, 귀국 후 모교에 잠깐 봉직했다. 그 뒤, 그는 10년 계획으로 대가를 얻기 위한 불도를 밟고자 금강산·장안사·지장암으로 떠나셨는데 나는 그 무렵의 입학생이었다.

나는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작정이었던 터라, 서울을 떠나(1937.11.1) 단발령을 넘어 그가 수도중인 암자로 갔다.

장안사에 머물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고, 한 달 뒤 거기를 떠난 이래 나는 그 이름을 내 생애의 큰 스승으로 모셨다.

이야기 동국 100년史

필동캠퍼스로의 이전

⑩ 동국대학으로의 승격

해방이 되자 각 학교는 개교와 함께 교육정상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1946년 6월 문교부는 미군정기 공포한 대학령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제도의 임시조직'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에는 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종합한 규모의 대학을 '종합대학교', 인문 혹은 자연과학 한 단위로 한 기관을 '대학'으로 한다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었다.



초기의 필동 캠퍼스

해방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학교시설의 미비와 재정적 뒷받침이었다. 해화동의 학교 건물은 해방과 함께 반환되었으나 부지 2,700여 평에 건립된 2층 건물은 불과 251평에 불과하여 대학 건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비좁았다. 재단은 수차례의 논의 끝에 중구 필동 3가 26번지 일대의 부지를 새로운 교사로 건립하기로 하였다. 필동의 토지는 일본 조계중이 소유하고 있던 평야로 2만 3,987평의 넓은 대지에 연건평 617평의 목조 기와지붕 건물 7개 동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45년 9월에 출범한 조선불교 중앙총무원은 이듬해 4월 15일 중앙에 불교중앙총무원 및 조계학원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1946년 5월 20일에는 38선 이남의 각 사찰이 200만 평이라는 광대한 토지를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지가 확보되고, 재단이 증자를 통해 안정을 되찾으면서 대학 승격에 필요한 조건이 모두 완비되었다. 그러나 문교당국이 정한 기준에 부합했던 연희전문·이화여전·보성전문은 1946년 8월 15일에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으나 해화전문학교는 불교전문학교라는 성격과 3개 단과대학 확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9월 20일에 동국대학으로 승격되는 것에 반쪽해야 했다.

정국대학으로의 승격을 계기로 전면적인 학제개편이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대학의 학제를 학부와 전문부로 나누고, 전문부는 전문1부와 전문2부로 구분하였다. 학부는 불교학과·문학·사학, 전문1부는 불교학과·문학·사학, 전문2부는 국문학과·문화·역사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향후 종합대학교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학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1947년 5월에 학부를 문과부와 정경학부로 분리시키기로 하고, 정경학부에 정치학과 및 경제학과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당시 타 대학에서는 정치학과 경제학이 상학부에 편제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경학부는 우리학교가 국내 최초로 편제된 학부였다.

이용범
소설가·동국 100년사 대표 집필자

제433회 연극학과 3학년 하계 워크숍공연

대학로가 동악에 찾아왔다

예비 연극인들의 열정이 녹아든 무대 ...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 부족은 아쉬워

“어떻게 하면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밝아진 무대사이로 커다란 가방을 들고 축 늘어진 채 텅텅터덜 한 사내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의 부인과 아이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낸다. 표정의 미묘한 변화와 조금은 과장된 듯한 몸짓, 그리고 표정은 대사 그 이상의 것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지난 6일부터 3일간 예술극장에서 제 433회 연극학과 3학년 하계 워크숍공연이 열렸다.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을 올린 이번 공연은 지난 두 달여 동안 작품 선정과 팀 구성에서부터 작품 분석이나 무대설치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일궈낸 노력의 결과물이다. 워크숍은 지도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힘에 의해 꾸려나가는 것이 원칙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세일즈맨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34년 동안 줄곧 한 회사에서 외판원으로 일한

세일즈맨의 삶에서 결국 남은 것은 한 인간의 소모된 가치임을 알게 된다. 주인공 윌리는 결국 보험료를 받아 가족을 살리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른 다. 윌리 역을 맡은 박광일(연극4) 군은 “윌리는 헛된 꿈을 꾸면서 자존심이 세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아니라고 여기는 아이러니한 인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작품이 전혀 생소한 이야기기 아닌 ‘보통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 다뤘다는 점이다. 연출을 맡은 유희준(연극3) 군은 “주인공들의 삶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다”며 “우리의 시각이 주인공의 허황된 꿈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극에는 여러 구성요소가 있지만 미리 계산된 무대장치나 특하나 눈에 띈다. 먼저 무대에서 아들들의 공간을 아버지보다 높게 배치함으로써 이들 간의 단절된 시각

을 나타냈다. 또한 일상적인 현실의 등퇴장은 출입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과거 등 환상의 공간은 벽면 혹은 앞무대를 통하게 된다. 반면, 음향의 경우 모든 기자재를 학과에서 자체 준비하다보니 보다 다양한 효과를 주지 못했다.

한편, 어느 공연이든지 배우의 열정에 보답하는 관객의 호응이 있을 때 그 공연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하지만 연극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내 공연이 지인이나 소속 선후배의 잔치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연극학과 워크숍의 경우 연극학과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이 관람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김아름(잠실여고2) 양은 “고등학교 연극부보다 수준이 높아서 도움이 많이 됐다”며 “주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다소 지루한 면도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객석의 절반 이상이 고등학생들로 채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학내공연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그런가하면 평균 한 공연당 400~500만 원이 소요되는 워크숍에서 약 20%의 학교 지원금 이외에는 학생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팀의 한 관

계자는 “연극학과의 경우 실험실습비로 등록금의 3%가 배정되고, 다른 학과와의 형평성 문제와 워크숍 외에도 지급되는 실험실습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상황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몸소 체득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열정과 숨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자리이다. 예비연극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번 워크숍이 그들뿐만 아니라 관람한 모든 이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워크숍 일정

2학년 워크숍 (빠와 살, 이강백 원작):
9월 11일(월)~13일(수) 5:00/ 8:00
예술극장

1학년 워크숍 (우리집내, 손턴 외일더 원작):
9월 16일(토)~18일(월) 4:00/ 7:30
예술극장



문화예술인 그리고 동국

인물의 다양한 느낌을 고스란히 화폭에 담아 내

하늘은 붉게 물들다가도 비가 오면 금세 어둑어둑해진다. 한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같은 이름표를 달고 있는 이를 만나도 언제나 다른 느낌이다. 때문에 박미진(한국화 전공 03졸) 동문은 대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다르게 느껴지는 바를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애쓴다.

그의 그림에서는 오랜시간에 걸친 노력의 흔적이 묻어난다. 이는 수백 번 색을 덧칠해서 완성하기 때문이다.

그가 사용하는 채색기법은 중색로 “색과 색이 더해지면서 혼합된 색이 발색된다. 이 때문에 한국화는 같은 색이라도 다양한 느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름테면 아이와 어른의 경우 같은 살색이지만 아이의 피부는 투명한 반면에 어른의 피부는 타고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해 어둡다. 박 동문은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포착해서 화폭에 옮길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쓴다.

한편 그는 한국화 중에서도 인물화를 고집한다. 동일한 인물을 10년 동안 관찰하더라도 매번 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그에게 사람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자 만남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인물화분야에 애착이 많이 간다고.

사실 화가가 되는 길은 그리 호락호락 하지않은 않다. 한 해에 미술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이 수천 명에 이르지만 그 중 1년 이상을 견뎌 내는 사람이 드물다. 매번 고비가 찾아와도 ‘잘 할 수 있다’고 되뇌며 버티는 것을 지속해야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무언가에 흠뻑 빠져있기를 좋아하는 그는 지금 인물화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다. 인물의 내면을 그림 한 장에 담아내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는 그에게서 예술가의 열정이 물씬 느껴진다.

이주연 기자
yiyoonjae@dongguk.edu



한국화가 박미진(한국화전공 03졸)

메아리

지조 혹은 변절

▲ 시인 조지훈은 ‘지조론(志操論)’에서 “지조는 어느 때나 선비의, 교양인의, 지도자의 생명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조를 잃고 변절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자임하는 바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조론’은 부패한 정치현실 속에서 사회의 지도층인 정치인들이 정치적 신념이나 지조 없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절을 일삼는 세태를 통렬히 비판한 글로, 이 글에서의 정치가의 변절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뿌리 깊은 문제로 보인다.

▲ 새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4일 학자로서 오래 간직해온 교육적 소신을 한 번에 뒤엎는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나의 교육정책에 대한 생각은 기본 방향에서 일치한다”며 “그래서 교육부총리로 발탁된 것으로 알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졸공 교육 경쟁력을 강조해 왔다. 평준화가 교육의 획일화를 불러온다며 비판하고,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교육철학이었다.

▲ “학자의 견해와 정책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자신의 생각과 정부의 정책기조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그의 말은 그가 그간의 저서 등을 통해 밝힌 소신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대립

되는 면이 있다는 등의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문제는 학문적 신념과 소신을 바꾸는 일이다. 누구나 새로운 학문적 발견이나 깨달음을 통해 생각과 신념을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의 급격한 소신 변경은 ‘변절’이라고 비판 받아 마땅하다.

▲ 조지훈은 ‘지조론’을 통해 변절이 단순히 절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의 사적 이익을 위해 올바른 신념을 버리는 것임을 나타냈다.

김 내정자의 발언은 교육부총리가 되려고 학자적 소신을 버렸다고밖에는 해석하기 힘들다.

부총리직은 길어야 1~2년이지만 학자는 영원하다.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해 코드형 정치인보다는 지조 있는 학자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주현 대학부장
niitake@dongguk.edu